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 2,2)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르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주님 공현 대축일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인류의 빛이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날입니다.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께 맞갖은 예물을 드립시다.

- **입당송** 말라 3,1; 1역대 29,12 참조

- **제1독서**
이사 60,1-6

- **화답송** 시편 72(71),1-2.7-8.10-11.12-13(◎11 참조)

-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2독서**
에페 3,2.3ㄴ.5-6

- **복음환호송** 마태 2,2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 알렐루야.

- **복음**
마태 2,1-12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교회를 살피 주시어, 용서와 사랑의 밑거름이 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통치자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시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상황을 함께 살피고, 인류의 미래와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하여 깊이 대화하고 협력하게 하소서.
3.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을 보살피 주시어, 자신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어떤 어려움도 희망으로 이겨 내게 하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망의 주님, 믿음으로 모인 저희 중동 한인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모든 이가 열린 마음으로 친교를 이루고 공동체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실현하게 하소서.



- **영성체송**
마태 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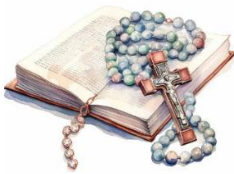
[남아라비아 대목구] 2026 년 남아라비아 대목구(AVOSA) 총회



남아라비아 대목구(AVOSA) 총회가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 기 간: 1 월 5 일(월) ~ 8 일(목)
- ▶ 장 소: 아부다비 성 요셉 주교좌 성당

[아캠] '이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란 공동체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종교 집회가 금지되어 근래에는 미사 참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국민들과 이란 공동체를 기억하며 사랑과 평화의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謹賀新年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민수 6, 24

남아라비아대목구

[교종 레오 14세] 1월 기도 지향

1월: 하느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하느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희망의 원천이 되어, 더욱 형제애 넘치고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중동한인
AKCCME가
통리
공동체
함께하며, 하나되며
모습들

<UAE 공동체>: 성탄 합동 미사



12월 25일 (목) 11:30am

주님 공현 대축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회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시고 인류에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을 동방 박사들의 방문 사건으로 되새기고 경축한다. 본래 축일은 1월 6일이지만, 한국교회에서는 모든 신자가 이날을 경축하도록 1월 1일 다음에 오는 주일에 지낸다. 주님 공현 대축일의 의미와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본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 안드레아 만테냐 作

■ 구세주의 빛 발견한 동방 박사들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11)

고대사회에서는 하늘에 새로운 별이 떠오르면 별이 나타난 지역에 중요한 인물이 탄생한다고 여겼다. 신약성경 원문을 보면, 박사라는 단어가 마술사와 점성술사를 뜻하는 ‘마고스’(magos)로 나와 있다. 보통 성경에서 점성술사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마태오복음서에 이들은 천문학적 지식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이방 세계의 현자들로 나타난다.

복음서에는 이들의 출신이나 인원수가 기록돼 있지 않다. 박사들이 왔다는 ‘동방’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인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로 추정된다. 3세기

교부 오리게네스는 아기 예수에게 황금·유향·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기록에 따라 박사들의 수를 셋으로 봤다. 과거에 동방 박사는 삼왕(三王)이라고도 표현됐다.

구약의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이사 60,3)라는 말씀과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시편 72,10) 등의 예언을 예수의 탄생과 관련지어 해석했기 때문이다. 교회 전승 안에서 이들의 이름은 멜키오르, 발타사르, 가스파르로 알려졌고, 중세 때부터 성인으로 공경됐다.

복음서에서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며 다윗의 자손”(마태 1,1)으로 소개된다.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드러낸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예수의 탄생으로 구원의 빛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 비춘다는 것을 강조하며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계획을 보여준다. 대부분 성화에서 동방 박사들은 인종과 연령이 다르게 표현돼 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인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부각한 것이다..

■ 그리스도의 신원 드러내는 예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은 모든 민족을 대표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황금·유향·몰약을 예물로 가져왔다. 각 예물은 아기 예수가 누구이며 어떤 운명을 지녔는지를 보여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금은 가장 값비싸고 귀한 보물이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린 것은 그리스도의 고귀함과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의 왕권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유향은 예수의 신성, 즉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뜻한다. 유향은 과거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올릴 때 태우던 향료였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단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긴 성경,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향해 분향한다. 유향은 인간이 하느님께 바치는

가장 경건한 봉헌물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서 하느님이심을 고백하고 구세주를 찬미하는 행위다.

몰약은 구세주의 사명을 상징하는 예물이다. 상처에 바르는 기름인 몰약은 죽은 자의 몸에도 발랐고, 장례 예식 때도 사용했다. 몰약 예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수난받고 죽게 될 하느님의 어린양이라는 사실을 예고한다.

성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은 세 가지 예물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우리 각자가 매일 그리스도께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고 했다. 교황은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려 노력하고, 매 순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금을 바치는 행위라고 봤다. 향유는 기도를 상징하며,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앞에 솟아오르는 향이기에 날마다 기도로서 주님께 삶의 향기를 봉헌해야 한다고 했다. 몰약은 욕을 이겨내는 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인간적인 모든 욕심을 포기할 때 주님께 몰약을 바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 빛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

동방 박사들의 여정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반영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 위에 있다. 구세주의 별을 보고 예물을 들고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주님께 맞갖은 예물을 드리려는 마음이 짐이 필요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월 6일 주님 공현 대축일 삼종기도에서 “동방 박사들은 별의 상서로운 인도를 받아 힘든 여행을 거치고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신성이 숨겨져 있고 승리자처럼 보이지도 않는 아기를 보고도 경배했다”며 “이는 작음 안에 나타나신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이어 “동방 박사들은 하느님의 논리 앞에서 몸을 낮추고, 있는 그대로의 작고 가난한 모습의 주님을 받아들였고, 자신이 가진 생각을 버리고 하느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그들의 부요함은 스스로를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겸손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며 길을 떠났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별을 보고 걷고, 그 걸음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이것이 주님 공현 대축일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2021년 바티칸 성탄 우표에 그려진 동방 박사, CNS 자료 사진

동방 박사들은 대화조차 나눌 수 없는 갓난아기와와 만남을 위해 험한 여정을 거쳐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다. 토마스 엘리엇의 ‘동방 박사들의 여행’이라는 시 속 “당신께서 이 아이를 통해 주시려는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구절처럼 그들은 갓난아기의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 속에서도 구원을 보려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로 이끄는 별을 따라 겸손되이 경배의 여정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기쁘게 맞아들이고, 구세주를 따르는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게 한다.

<가톨릭 신문 발췌, 편집>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 아멘.



그리스도교 일치 를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서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 ◎ 아멘.



2025년 12 월 아캠 회계보고

(단위: AED/소수점 버림)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내 용	금 액	비 고	내 용	금 액	비 고	
아캠 기금	전월 이월금	22,226	(2025년 11월 이월금)	성무월등비	2,000	(아캠 전담 사제: 12월)	
	후원금	단체		감사	3,000	(아캠 전담 사제 성탄 감사)	
		개인	1,500	공동체	210	(주보 납달 퀴즈 당첨자 상품: 2명)	
	납입금	아부다비	1,200	가난 기금	135	(12월 아캠기금 5% 적립)	
		두바이					
		두와이스/바라카					
	기타 수입금 (이자 및 기타)						
		24,926			5,345		19,581
가난 기금	전월 이월금	13,566	(2025년 11월 이월금)				
	모금액	단체	3,135				
		개인	500				
		17,201			0		17,201
	수입 합계	42,127		지출 합계	5,345		36,782

< 아캠 후원금 상세 내역 >

개인: (1) 박효진 세실리아 (2) 이윤이 유스티나 (3) 차연경 모니카(가난기금) 단체: (1) 아부다비 공동체(가난기금)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100% Handmade 100% Fresh Fruits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GULF KOREAN TIMES 걸프 코리아 타임즈 -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 마케팅 기회 제공 -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 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 (+971) 50 461 3991 /  : @gktmedia
---	--	--